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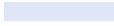
# 「문학 출제 의도 분석」

강  
사

정  
연  
중

2024학년도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의 공동된 출제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 “자외적 해석에서 벗어나 작품 밖 <보기> 혹은 작품 내 맥락을 기준으로 해석할 것.”

풀이의 원리 : 

함정의 원리 : 

### 2024.06.평가원 「한거십팔곡」 23번 출제 의도 분석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백세(百歲)인들 길겠느냐  
◎십년 전 진세(塵世)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제19수>

23-④ : ◎은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다.

▶ 정연중T : 윗글의 맥락과 무관하게 ‘일상적 의미’로만 23-④의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세월이 빠르다’는 ‘이미 흘러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부장님이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세월 참 빠르네... 입사하던 게 엇그제 같은데...”라고 말하는 걸 상상해보면 그 의미가 납득되죠?) 또한, 흘러간 세월이 빠르다는 맥락에서는 화자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하지만, 「한거십팔곡」의 <19수>에서 ‘세월이 빠르다’는 표현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일상적 의미’가 아닌 ‘맥락적 의미’를 파악한 후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이때 맥락적 의미란 초장, 중장, 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했을 때 갖게 되는 의미를 말합니다.

<19수>의 초·중장은 화자가 강물을 보며 강가에 여유롭게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대로라면 ‘100살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다’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네요.

<19수>의 종장에서는 진세의 일념이 얼음 녹듯 사라지는 것 같다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 판단을 해볼까요?

일단 23-④의 ‘◎이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백세(◎)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19수>에 드러난 화자의 주된 정서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인 강물을 구경하며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맥락적 의미’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23-④는 제대로 된 서술이 하나도 없는 선지네요.

## “자의적 해석에서 벗어나 작품 밖 <보기> 혹은 작품 내 맥락을 기준으로 해석할 것.”

풀이의 원리 :

함정의 원리 :

### 2024.06.평가원 「한겨십팔곡」, 「기취서행」 26번 출제 의도 분석

이윽고 취서사에 도착하니 근방 마을에서 모여든 자가 거의 승려들 수와 맞먹었는데, 모두 겨울 때문에 온 자들이었다. 좌우에서 낚아채 가며 많이 가지려 다투고,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밭아 대어 곧 시장 판을 만들었으며, 가져감이 많고 적음은 그 힘의 강약에 따랐으나 승려들은 참견하는 바가 없었다.**

26-④ : (나)의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밭아 대’는 모습에서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 ▶ 정연중T : <보기>를 참고하지 않고, 26-④를 판단해 봅시다. (나)의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밭아 대’는 모습이 ‘근방 마을에서 모여든 자’들이 겨울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일까요?

이번에는 아래의 <보기>를 참고하여 판단해 봅시다.

— <보기> —

(가)와 (나)에는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 (가)에는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이, (나)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타난다. 한편 (나)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인다.

<보기>를 참고하면, 26-④의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의 주체는 (나)의 작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가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사람들’의 상황에서 확인할 수는 없기에 26-④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분석했던 23-④와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23-④는 ‘작품 안 맥락’을 기준으로, 26-④는 ‘작품 밖 <보기>’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 “자의적 해석에서 벗어나 작품 밖 <보기> 혹은 작품 내 맥락을 기준으로 해석할 것.”

풀이의 원리 : 

함정의 원리 : 

### 2024.06.평가원 「무성격자」 30번 출제 의도 분석

[A]

정일이는 더욱 불쾌하여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 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이 소인 놈! 하는 의분 같은 ㉠심열이 떠오르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나와 공모를 하였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었다. 그러나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았다. 이러한 심열은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백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놓쳐 뿌린 결과가 어떤가? 해보자 하는 농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이는 조금히 도장을 뒤져내며, 자 칠 대로 치우, 나는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까 하였다. 이렇게 지껄이듯이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열에 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30-㉠ :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 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정연중T : 밑줄에 회색으로 형광펜 표시해 둔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았다.’의 의미를 그 앞부분‘만’을 참고하여 이해해 봅시다.

정일은 용팔이(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 내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용팔이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일은 자신의 얼굴에서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흐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일은 너무 불쾌해서 용팔이의 뺨을 갈기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이 상황을 웃어넘기려는 자신을 발견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30-㉠는 적절한 선지처럼 보이는데 무엇을 놓친 걸까요?

이번에는 앞뒤 맥락을 ‘모두’ 참고하여 이해해 봅시다. 정일은 물질적 욕망에 눈이 먼 용팔이의 뺨을 갈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얼굴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흐름을 깨달았습니다. 정일은 용팔이를 향해 품었던 분노가 그저 신경 쇠약 때문이 아닐까 의심하며 합리화를 합니다. 이후에 결국 정일은 “자 칠 대로 치우, 나는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까”라고 말하며 못 이기는 척 도장을 건넵니다.

이러한 앞뒤 맥락을 바탕으로 할 때, 정일의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은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모면하려는 웃음이 아니라, 정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품고 있던 물질적 욕망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해야겠네요.

## “자의적 해석에서 벗어나 작품 밖 <보기> 혹은 작품 내 맥락을 기준으로 해석할 것.”

풀이의 원리 :

함정의 원리 :

### 2024.06.평가원 「봄」 33번 출제 의도 분석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  
은 내 언어의 똥에서 굴러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  
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  
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래  
봄은 지옥이다.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뭇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옳으면  
자.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33-㉤ :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어.

▶ 정연중 T : 담벽을 ‘일상적 의미’로 이해하고, 뒷글의 ‘일부’만 발췌독하여 33-㉤의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① ‘담벽’은 일반적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상들이 담벽 ‘안’에 있다는  
것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② (나)의 1연에서 ‘(자신의 언어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  
고, 반짝이고, 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한다는 것도 틀렸  
다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이번에는 ‘일부’가 아닌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33-㉤를 판단해 봅시다.

화자는 대상들(담벽, 라일락, 별, 개똥)에게 자신의 언어 속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언  
어에 자유를 주었으니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르라고 합니다. 자신의 언어에 부여한 자  
유가 봄이고, 2연의 첫 문장에서는 그러한 봄이 곧 자유라고 하네요.

그런데, 2연에서 화자가 갑자기 봄을 ‘자유’가 아닌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겠습니까. 봄이 ‘자유’가  
아닌 ‘지옥’이라면 대상들(담벽, 라일락, 별, 개똥)은 너무 슬프겠네요. 하지만, 대상들은 봄을 ‘꽃피  
는 지옥’이라 할 때에도 여전히 꽃을 피우고, 반짝입니다. 다행히 대상들은 언어에 구속받지 않나  
보네요. 끝으로, 화자는 이러한 대상들에게 ‘자유’라며 마음껏 뛰어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를 판단해 볼까요? 「봄」에서 사용된 ‘담벽’이란 시어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벽이 아니죠.  
‘담벽’은 ‘라일락, 별, 개똥’과 마찬가지로 언어에 구속받지 않는 변함없는 대상임을 의미하는 시어  
입니다. 그리고 1연에서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고 말하는 것도 자유를  
공유하는 모습이 아니죠. 화자가 자유를 주지 않더라도 대상들은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를 것이니  
까요. 화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 더욱 자유를 ‘공유’하려는 모습으로는 볼 수 없겠네요.

## “자의적 해석에서 벗어나 작품 밖 <보기> 혹은 작품 내 맥락을 기준으로 해석할 것.”

풀이의 원리 :

함정의 원리 :

### 2024.09.평가원 「숙영낭자전」 21번 출제 의도 분석

상공과 정씨 부인 내달아 낭자를 붙들고 통곡하며, “낭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하며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낭자 상공과 정씨 부인 앞에 가 절하고 사뢰되, “㉠첩은 천상의 죄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 한탄치 마옵소서.” 하며, “㉡옥황상제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가옵나이다.” 하니, 상공 부부 더욱 처량한 심사를 측량치 못할라. 낭자 백학선과 약주 한 병을 드리며, “㉢이 백학선은 몸이 추우면 더운 바람이 나오니 천하 유명한 보배이옵고, 약주는 기운 불편하지 거든 드십시오. 백학선과 약주를 몸에 지니시오면 백세 무양하오리다.” 하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의 세계로 모셔 가오이다. 천상 선관이 연화궁에 자주 다니오니 극락 연화궁으로 오시면 반가이 만나 뵈오리다.” 하고 선군더러, “우리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하직하고 올라가사이다.” 하니 선군이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하니, 선군과 낭자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왈**, “소자 등은 세상 연분이 다하였삽기로 오늘 하직하옵나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하며, “부모님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고 청사자 한 쌍을 몰아 한림은 동춘을 낭자는 춘양을 안고, 구름에 싸여 올라가는지라. 상공 부부 낭자와 선군이 천궁에 올라간 후로 망연해하며 세간을 다 나누어 주고, 백세를 살다가 한날한시에 별세하더라.

21-㉠ : 숙영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하는 데에서,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 주어 숙영 부부를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려 낸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정연중T : 윗글의 일부만 발췌독하여 21-㉠의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선군이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하니’를 보면, 선군이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승천을 망설인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일부’가 아닌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21-㉠을 판단해 봅시다.

- ① 숙영 부부는 상공 부부에게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간다고 말함
- ② 낭자는 인간 세상에 남겨질 부모님이 걱정되어 부모님께 ‘백학선’과 ‘약주 한 병’을 드림
- ③ 낭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실 것이라고 말함
- ④ 낭자는 천상으로 떠날 때가 되었으니 가자고 하고, 선군은 부모지정을 못 잊어 슬퍼하고 있음
- ⑤ 숙영 부부는 세상 연분이 다하여 어쩔 수 없이 하직 인사를 하고, 천궁에 올라감
- ⑥ 상공 부부는 세간을 다 나누어주고, 백세를 살다 한날한시에 별세함

이러한 전체 맥락을 감안하면, 천명을 거스르지 못해 ‘무조건’ 떠나야만 하지만 부모님을 인간 세상에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하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정해진 운명인 ‘승천’을 망설인다는 21-㉠은 말이 안 되네요.

## “자의적 해석에서 벗어나 작품 밖 <보기> 혹은 작품 내 맥락을 기준으로 해석할 것.”

풀이의 원리 :

함정의 원리 :

### 2024.09.평가원 「월훈」 21번 출제 의도 분석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우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 루룩 후루룩 처마 기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21-㉠ :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정연중T : <보기>를 참고하지 않고, 21-㉠을 판단해 봅시다. 밤에 외딴집 노인이 출출해서 무와 고구마를 깎다가 문득 들려오는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고, 새들의 온기를 생각하고 있네요.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데요? 적절한 선지 아닌가요?

이번에는 아래의 <보기>를 참고하여 판단해 봅시다.

— <보기> —

(가)는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이다.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낮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보기>에서 노인이 낮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월훈」을 해석하면, 노인이 ‘귀를 모으고 짚단 소리를 듣는 것’과 ‘숨을 죽이고 새들의 온기를 생각하는 것’이 곧 ‘낮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이겠네요.

그렇다면 ‘짚단 소리’와 ‘새들의 온기’는 ‘낮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해당하겠죠?

<보기>를 참고하여 「월훈」을 해석하면, 21-㉠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노인이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니요...?’

21-㉠는 무조건 틀렸네요.

## “자의적 해석에서 벗어나 작품 밖 <보기> 혹은 작품 내 맥락을 기준으로 해석할 것.”

풀이의 원리 :

함정의 원리 :

### 2024.09.평가원 「사설시조」 34번 출제 의도 분석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먼 산 두메로 썩 사냥 보내고 흰 말 구불구중\* 갈기 솔질 활활 살살 하여 임의 집  
송정 뒤 잔디 잔디 금잔디 밭에 말 말뚝 광광쌍쌍 박아 승마 바 고삐 길게 늘려 매고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자나 굶으나 굶으나 자나 주섬주섬 남아 내어  
시내 동으로 뻗은 움버들 가지 와지끈 똑딱 꺾어 거꾸로 잡고 잎사귀 셋만 남기고 주루룩 훑어 아가미 너  
슬너슬 꿰어 시내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 실죽 청 바둑돌로 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짝 자기  
자 장단 맞춰 지근지지 놀려 놓고 동자야 이 뒤에 학 타신 선관이 날 잣거든 그물 낚싯대 종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병까지 가지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만 주소

아마도 산중호걸이 나뿐인가 하노라

\*구불구중 : 말 모는 하인.

\*종다래끼 : 작은 바구니.

#### 34-① : (나)의 '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군.

- ▶ 정연중T : <보기>를 참고하지 않고, 34-①을 판단해 봅시다. 화자는 매 사냥을 하고, 말을 고삐에 매어 두고, 고기를 잡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학 타신 선관'은 화자의 친한 친구인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자신을 찾으면 술병 들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 달라고 동자에게 부탁하고 있는데요. 시적 상황은 완전 풍류 그 자체네요. 매를 길들여서 매 사냥을 하는 것을 '고고한 취향'이라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요?

이번에는 아래의 <보기>를 참고하여 판단해 봅시다.

<보기>

고전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로 그려지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으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

<보기>에서는 (나)의 자연을 현실적 풍류의 장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작자미상의 「사설시조」를 해석해보면, '매 사냥을 하는 것, 고기를 잡는 것, 술을 마시는 것...' 모두 현실적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었네요. 그런데 34-①에서는 '고고한' 취미라고 하고 있으니 무조건 틀렸네요.

'고고(孤高)하다'는 '세상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 풍류'를 세상일에 초연한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홀로'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친구랑 같이 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고고함'은 (가)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궁서체입니다. 매우 진지합니다.)

올해 문학은 특히, '해석의 기준' 을 명확히 잡고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으로는 당연히 <보기>와 문맥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수능 시험 당일, 오전 8시 39분에 딱 3가지만 상기시켜 주세요.

**하나**, 배경지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보기>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한다.  
**둘**, 특정 어구가 아닌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하고 판단한다.  
**셋**, 나 자신을 믿는다.

남은 50일 동안,  
내가 하지 못 하는 것에 도전하면  
내가 가지 못 하는 곳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